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 -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정 속 희 · 전 명 희**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인 H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서 매개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체리더십훈련이 H대학교 대학생들의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위해 H대학교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일 기숙사 그룹에 속해있는 기독교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대학교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 정도를 볼 때 일반적 사용자 집단이 전체의 81.6%였으며, 잠재적 중독과 중독 집단이 18.4% 가량 되었다. 둘째로,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는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동료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 사회부적응 정도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료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부적응 정도를 낮추는 경로가 파악되어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격려와 지지가 있을 때에는 심각한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인성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과 공동체리더십훈련과 같은 지지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대학생, 인터넷사용, 사회부적응,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1년 진행된 한동대학교 공동체리더십 교과목 개발연구(교내연구) 데이터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2012년 5월 1일 접수, 6월 5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I. 서론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 폰의 보급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 안의 인터넷 접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인터넷사용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이러한 인터넷사용문제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는 99.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연령대의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사용 목적도 '자료 및 정보 획득(92.0%)',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87.9%)', '음악, 게임 등 여가활동(87.9%)'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인터넷이 이용되지 않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사용이 일상화된 우리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특히 학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사용 정도가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용량도 많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이렇게 대학생들이 인터넷 과다 사용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데,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어들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과 일상생활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이 가져오는 폐해들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는데, 인터넷 중독증상이 심할수록 공격성 및 공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정혜 외, 2008; 김진화·유귀옥, 2008; 김은정·김하나, 2007), 인터넷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기통제력은 낮아지며,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최현석·하정철, 2011). 또한 컴퓨터 게임중독인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과 관련된 충동통제력과 대처능력,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유경·채규만, 2007; 한기홍 등, 2006). 즉, 우울, 외로움, 불안, 자아존중감, 대인예민성,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감각추구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윤재희, 1998; 김종범, 2000).

국내에서의 연구동향은 인터넷사용의 부작용 뿐 아니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넷사용을 직접적으로는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중독과 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입 노력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남영옥, 이상준, 2002; 주석진, 2011). 그러나 이러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 중 자율적 생활을 하며 가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며 이 세대를 거스르는 힘을 얻기 위하여 건강한 인터넷사용을 위한 제언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나, 기독교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연구 또한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황혜리·류수정, 2008; 윤예진·신성만,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정보이용 방안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보호요인들이 필요한 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교에서 인터넷사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부적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인성 교육과 공동체적 삶의 기숙사 생활에서의 동료 학생들의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터넷사용은 사회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가 인터넷사용과 사회적 부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과 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사회부적응을 낮출 것이다.

II. 선행연구 개괄

1. 대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사회적 부적응 문제

대학생들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성인이 되어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학습을 위해서나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과정들이 대부분 인터넷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사용이 더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많이 있어왔으나 대학생의 인터넷사용 정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박영신 등(2008)의 초, 중, 고, 대학생의 인터넷사용에 관한 비교연구를 보면 초·중·고 학생보다 대학생이 될수록 인터넷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대학생이 되어서 인터넷사용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록 성인이지만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장치 또한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인터넷 문제 중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윤예진·신성만, 2009)에서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3.3%가 사이버섹스 중독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비기독교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을 비교해보았을 때에 비기독교 대학생이 기독교 대학생보다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가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대학생의 인터넷사용 정도와 관련된 황혜리와 류수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위험사용군이 전체의 8.1%나 차지하였고, 그 위에 39%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사용 정도를 조사한 남영옥과 이상준(200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에¹⁾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으며, 기독교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문제에 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독 증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이루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자들의 우울, 충동성, 외로움, 불안, 자이존중감, 공격성, 대인예민성,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감각추구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윤재희, 1998; 김종범, 2000; 권정혜 외, 2008; 김진화·유귀옥, 2008; 김은정·김하나, 2007). 이외에도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홍외런,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영아와 정원철(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응 정도에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사용을 많이 할수록 더 학교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

1) 남영옥과 이상준의 연구(2008)는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 1,8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으며, 그 결과 37.7%(690명)는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었으며, 62.3%(1,140명)는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나타났다.

보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한기홍 등, 2006), 최현석과 하정철(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인터넷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성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때에 중·고등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 대인관계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대학생들도 학교 적응정도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사용과 사회적 부적응 관계에서의 보호요인: 자기효능감과 동료지지

인터넷사용이 일상 생활화된 시점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넷사용량을 통제하지 않아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험요인을 막고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개괄하면서 자기효능감과 동료지지를 주요 보호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동료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친구 혹은 또래 지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동료지지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보호요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지각 기대로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개념화된 이래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장우귀 등, 2007; 박효정 등, 2008; 김광숙 등, 2008).

자기효능감과 인터넷사용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도 대체로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만제, 2009; 남영옥·이상준, 2005; 이지향·김광웅, 2005; 송원영·오경자, 2009).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과다사용이 정적 관계에 있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황혜리와 류수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의 위험군이 일반사용군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송원영과 오경자(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과다사용과의 관계성을 정리한 이환성과 정진우(2012)는 현실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상에서 자기효능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는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오히려 인터넷 과다사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관습에 비순응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인터넷에 몰두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의존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이어져서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황상민(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개념이 현실공간에서의 자기개념과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고 가상공동체의식과 복합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박영신 등, 2008).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인터넷사용과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 자체가 인터넷의 과다사용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터넷 중독이나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며, 전반적으로 다른 부적응적 행동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광숙 외(2008)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대학생의 건강습관은 개인이 가지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부적응을 줄이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란 가설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2) 보호요인으로서의 동료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속적 대인관계가 있는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정서적 관심과 도구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한 생활 간에는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박영주 외, 2002; 박미경·정경희, 2002).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더 낮아지고 건강지각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미경·정경희, 2002). 인터넷사용 결과에 대해 보호적 요

인므로 작용하는 변인 중 자신과 가족에 관한 변인들을 제외할 경우 의미 있는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른바 친구 지지, 교사 지지가 보호적 역할을 하고 있다(남영옥·이상준, 2008; 이지향·김광웅, 2005).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에 인터넷 중심의 친구가 많고, 인터넷 몰입환경이 제공될수록 인터넷 과다사용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교정·서상현, 2006).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처한 청소년들이 외로움과 무망감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가상관계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결과를 살펴볼 때에 실제적 관계에서의 지지와 격려는 인터넷사용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동료지지는 H대학교의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동료들로부터의 지지를 파악하였다.

(3) 자기효능감과 동료지지

인터넷사용 결과에 대해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들로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부모의 원만한 관계, 부모의 돌봄적 양육행동,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으로 보고되어 왔다(남영옥·이상준, 2008).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관련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과도하게 간섭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지영, 2001; 이계원,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또래 관계에서는 인터넷 중심의 친구관계가 많을수록, 환경적으로는 PC방 이용 등 인터넷 몰입환경이 제공될수록 인터넷 과다사용과 중독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향과 김광웅(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성향을 살펴보면 친구 지지,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수업적응은 남자청소년의 인터넷사용량 및 중독에 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 부모의 애정적 태도, 친구 지지가 여자청소년의 인터넷사용량과 중독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가정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또래와 교사 등의 지지체계의 정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습관(김광숙 외, 2008), 진로결정(장선철, 2005), 정신건강(박효정 외, 2008)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로 입증되어 왔다.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광숙 외, 2008; 박효정 외, 2008; 이난·김현수, 2008). 특히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이난과 김현수(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예측력에 있어서 학급 친구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에 부모, 친한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적 변인에 가까운 외부적 지지가 내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임을 감안할 때 부모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자기효능감과 동료지지를 주된 보호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성교육의 일환인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동료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론적으로 인터넷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연구의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동료지지로써의 공동체리더십훈련

H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리더십훈련은 1년 단위로 한 교수 당 30~35명의 학생들이 학년 및 전공별로 다양하게 섞여서 매주 기본적으로 3시간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은 한 학기에 1학점을 부여 받게 된다. 각 활동에는 기숙사생활을 포함한 공동생활, 노동, 사회봉사, 토론, 인간관계 훈련, 성경 공부 등이 포함된다. 이 훈련의 지침서에 의하면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목적을 “기독교세계관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봉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를 훈련하는 공동체화, 제자화, 지도자화”로 설명하고 있다(한동대학교, 2007). 각 팀의 담임(팀) 교수는 멘토로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이외에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함께 살며 배우는 신앙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전공이 통합되어 한 팀으로 구성되며, 학년이 다른 4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삶과 배움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공동체로서의 이 훈련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영향력 있

는 교육이 되고 있다. 특별히 H대학에서는 본 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 이하 RC)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는 삶과 배움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인성·지성·영성 교육의 통합적 실행을 위해 학생생활관을 전인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²⁾. H대학에서는 그동안 생활관과 공동체리더십훈련을 전인적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는데, 최근 들어 생활관의 부족과 통합적인 인성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점차로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 보다 소규모적, 통합적, 프로그램보다는 멘토링을 통한 관계중심적, 공동체적 체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레지덴셜 컬리지는 현재 시범으로 하나의 공동체만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 레지덴셜 컬리지 체제에는 총 12명의 교수와 3명의 목회사역팀의 목사 /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350명 안팎이 한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함께 소속되어 있다. 특히 이 컬리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90% 이상이 한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동료들 간의 지지체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체리더십훈련이 갖는 보호적이며 치료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치료적 요인에 관한 정숙희와 전명희(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공동체리더십훈련은 집단으로서 대인관계를 학습하는 장이 되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서 서로 힘을 얻는 이타심의 치료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관계 연구(정숙희·전명희, 2011)에 의하면 공동체리더십훈련의 참여 정도가 기독교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살생각 정도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자들 중 한 공동체로서 동일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는 레지덴셜 컬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 간의 지지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자기효

2) 교내 규정 중 “RC 운영지침”의 제2항 RC의 정의를 참고하였다(학교내부자료). 이러한 RC 시스템은 이미 옥스퍼드대, 캠브리지대, 하버드대, 예일대, 토론토대 등에서 도입한 바 있는 체계로서 H대학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1년 전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다.

능감이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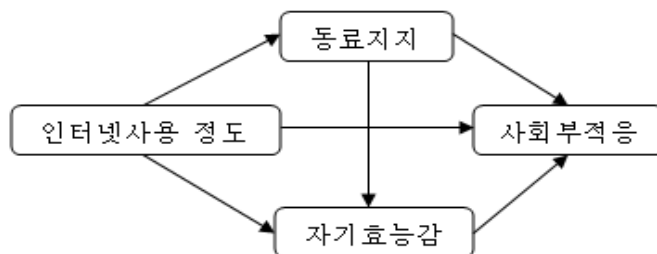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H대학교 2011년 1학기 공동체리더십훈련을 참여하는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0개의 한국인 팀 중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에 속한 12개 팀을 표본 추출하여 공동체리더십훈련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중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기독교 대학생 300명의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터넷사용 정도이고 종속변수는 사회부적응 정도이며, 공동체리더십훈련 내에서의 동료들의 지지와 자기효능감 정도는 매개변수이다.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일의 생산성, 수면 패턴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영(Young, 199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뜻한다. 점수가 20점에서 39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인터넷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정상적 인터넷사용자 집단, 40점에서 69점은 인터넷사용으로 잦은 어려움을 겪는 잠재적 중독위험집단, 70점에서 100점은 인터넷으로 인해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중독집단으로 구분된다.

(2) 사회부적응

사회부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건강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Goldberg, 1978))의 한국판 GHQ로 신성인(2001)에 의해 번역되고 표준화된 20 문항을 가진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요인, 불안요인, 사회부적응 요인, 외출 빈도 요인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부적응 요인은 총 9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76$ 이었다.

(3)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벅스(Vaux 등, 1986)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SS-A) Scale; 1986) 중 친구하위척도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가족하위척도, 친구하위척도로 이루어진 23 문항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중 SS-A친구(친구들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의 합)의 내용을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7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84$ 이었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최혜숙(2006)이 셰리와 마덕스(Sherer & Maddux, 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 측정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2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792$ 이었다.

(5) 통제변인

기독교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성별(남성=0, 여성=1),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터넷사용,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및 학년, 팀장 여부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된 평균차이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베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세 단계의 검증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측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변인을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으면 완전매개로 볼 수 있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유의하더라도 2단계에 비해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로 볼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한지는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배경

조사 대상자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158명(52.7%), 여학생이 142명(47.3%)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88명(29.3%), 2학년이 111명(37.0%), 3학년이 74명(24.7%), 4학년은 27명(9.0%)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현재 공동체리더십훈련에서 팀장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팀장이 10명(3.3%), 팀장이 아닌 경우가 290명(96.7%)이었다.

<표1>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N (%)
성별	남학생	158 (52.7)
	여학생	142 (47.3)
학년	1학년	88 (29.3)
	2학년	111 (37.0)
	3학년	74 (24.7)
	4학년	27 (9.0)
팀장여부	팀장	10 (3.3)
	팀장 아님	290 (96.7)

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정도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 정도는 중간값(60점)보다 낮았고(평균 32.45점), 동료지지 정도는 중간값(2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74점). 자기효능감 정도는 중간값(30점)보다 조금 높았고(평균 32.65점), 사회부적응 정도는 평균 20.01점으로 중간값(22.5점)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응 정도가 중간 값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8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며 (Kline, 2005)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정도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독립변인	인터넷사용 정도	32.45	10.32	20	79	1.65(.14)	3.47(.28)
매개변인	동료지지	28.74	5.71	9	42	-.16(.14)	.65(.28)
	자기효능감	32.65	3.44	21	42	.23(.14)	.53(.28)
종속변인	사회부적응	20.01	3.10	11	31	.48(.14)	1.18(.28)

한편, 인터넷사용 정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교차표는 아래의 <표3>과 같다. 전체적으로 비중독집단이 전체의 81.6%(240명)이었고, 잠재중독집단이 17.7%(52명), 중독집단이 0.7%(2명)이었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사용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3〉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집단별 실태

구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인터넷 사용 정도	비중독집단	121(41.1%)	119(40.5%)	240(81.6%)
	잠재중독집단	32(10.9%)	20(6.8%)	52(17.7%)
	중독집단	2(0.7%)	0(0%)	2(0.7%)
전체	155(52.7%)	139(47.3%)	294(100%)	

$\chi^2=3.927$, $df=2$, $p=.14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4>와 같다. 성별에 따른 동료지지 정도는 차이가 없었고, 자기효능감($t=2.206$), 사회부적응($t=-2.076$)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학년별 차이를 비교할 때, 학년에 따른 동료지지에 있어서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191$, $p<.01$).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사회부적응 정도에 있어서는 학년별 차이가 없었다. 팀장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을 때, 팀장인 학생이 팀장이 아닌 학생보다 동료지지($t=3.00$, $p<.01$), 자기효능감($t=3.01$, $p<.01$)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회부적응($t=-2.2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정도의 차이

구분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학생	29.07	5.81	1.069	33.05	3.74	2.206*	19.66	3.22	-2.076*
	여학생	28.36	5.60		32.18	3.01		20.41	2.90	
학년	1학년	30.43	5.90	5.191**	32.53	3.51	.338	20.12	3.45	.798
	2학년	27.90	5.18	1학년>	32.50	3.42		19.77	2.71	
	3학년	27.48	5.90	2학년,	32.81	3.44		20.39	3.22	
	4학년	30.00	5.38	1학년>	33.15	3.41		19.58	3.02	
팀장여부	팀장	34.00	7.02	3.00**	36.00	3.21	3.01**	17.90	3.21	-2.21*
	팀장이님	28.57	5.59		32.54	3.07		20.08	3.07	

*p<.05, **p<.01

3.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사용 정도는 사회부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250$), 동료지지($r=-.181$),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32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279$), 동료지지와 사회부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03$).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부적응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54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5〉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의 상관관계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자기효능감	사회부적응
인터넷사용				
동료지지	-.181**			
자기효능감	-.320**	.279**		
사회부적응	.250**	-.403**	-.547**	

주: 유의수준 * $p < .01$, ** $p < .001$

4.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1)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동료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베론과 케니(Baron and Kenny)(1986)의 방식으로 표준화 회귀 계수인 베타(β)계수의 절대값의 변화를 통해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터넷사용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를 매개변수로, 사회부적응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6>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이 동료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210, p<.001$). 즉, 인터넷사용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를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모델1). 둘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이 종속변수인 사회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274, p<.001$). 즉, 인터넷사용이 많을수록 사회부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2).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과 매개변수인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동료지지가 사회부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beta=-.369, p<.001$), 인터넷사용 정도도 사회부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96, p<.001$) 이는 2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모델3).

<표6>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동료지지의 매개 효과

항목		동료지지(모델1)		사회부적응(모델2)		사회부적응(모델3)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097	-1.682	.151	2.635**	.106	1.969
	학년	-.150	-2.594*	.035	.609	-.016	-.288
독립변인	인터넷 사용 정도	-.210	-3.627***	.274	4.747***	.196	3.567***
매개 요인	동료지지					-.369	-6.744***
상수		35.488***		15.759***		23.017**	
F		5.683**		8.832***		18.958	
r ²		.052		.076		.201	

주 : *** p < .001, ** p < .01, * p < .05

또한 모델 2의 설명력($r^2=.076$)에 비해 모델 3의 설명력($r^2=.201$)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est Statistic=5.239, $p<.01$)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 정도가 동료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동료지지는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동료지지가 인터넷사용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부적응을 낮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결과이다.

(2)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7>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이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338$, $p<.001$). 즉, 인터넷사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았다(모델1). 둘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이 종속변수인 사회부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74$, $p<.001$). 즉, 인터넷사용이 많을수록 사회부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2).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사회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beta=-.511$, $p<.001$), 인터넷사용은 사회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3). 또한 모델 3의 설명력($r^2=.294$)이 모델 2($r^2=.076$)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est Statistic=8.564, $p<.001$)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을 완전 매개하여 사회부적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7〉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항목		자기효능감(모델1)		사회부적응(모델2)		사회부적응(모델3)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156	-2.790**	.151	2.635**	.074	1.440
	학년	-.001	-.013	.035	.609	.029	.565
독립 변인	인터넷사용 정도	-.338	-6.004***	.274	4.747***	.080	1.749
매개 요인	자기효능감					-.511	-9.557***
상수		37.905***		15.759***		33.326***	
F		13.721***		8.832***		30.370***	
r ²		.117		.076		.294	

주 : *** $p < .001$, ** $p < .01$, * $p < .05$

(3) 인터넷사용 정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동료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동료지지가 인터넷사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7>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이 동료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10$, $p < .001$). 즉, 인터넷사용을 많이 할수록 동료지지가 낮았다(모델1). 둘째,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 정도가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38$, $p < .001$). 즉, 인터넷사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2).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인터넷사용 정도와 매개변수인 동료지지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동료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beta = .235$, $p < .001$), 인터넷사용 정도도 자기효능감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296$, $p < .001$) 이는 2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est Statistic = -4.657, $p < .01$) 인터넷사용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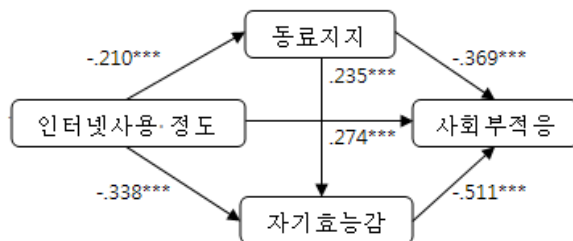
〈표8〉 인터넷사용 정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동료지지의 매개 효과

항목		동료지지(모델1)		자기효능감(모델2)		자기효능감(모델3)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097	-1.682	-.156	-2.790**	-.129	-2.361*
	학년	-.150	-2.594*	-.001	-.013	.031	.559
독립변인	인터넷사용 정도	-.210	-3.627***	-.338	-6.004***	-.296	-5.299***
매개 요인	동료지지					.235	4.255***
상수		36.070***		37.905***		32.111***	
F		6.296***		13.721***		16.072***	
r ²		.052		.117		.160	

주 : *** $p < .001$, ** $p < .01$, * $p < .05$

(4)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위의 결과(표6, 표7,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사회부적응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를 위해 설정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아래의 [그림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H대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공동체리더십훈련 내에서의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사용과 사회부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여 H대학교의 공동체리더십훈련이 대학생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를 위해 세운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고 그에 따른 논의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대학교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 정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 중독의 경향이 없는 비중독집단이 전체의 81.6(240명)% 이었고, 잠재중독집단이 17.7%(52명), 중독집단이 0.7%(2명) 정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에 있어서 잠재적 중독 및 중독군이 18% 안팎으로 나왔는데, 이는 황혜리와 류수정(2008)의 연구에서 기독교대학생의 39%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게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일반 대학생이나 청소년과의 비교에서도 낮게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터넷사용 설문 도구가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이미 레지텐셜 컬리지라는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인터넷사용 정도가 일반대학생들보다 낮은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연구에서 비교를 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터넷사용양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부적응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에 따른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 요인들이 사회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동료지지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부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터넷사용 정도와 사회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는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터넷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통해 사회부적응 정도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 모두 인터넷사용과 부적 관계를, 사회부적응과도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인터넷사용 정도가 공동체리더십훈련의 동료지지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부적응 정도를 낮추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인터넷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들 중 대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에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며 결론적으로 인터넷사용으로부터의 부적응 효과를 줄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H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리더십훈련이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기독교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RC 체제로 돌입한 H대학교의 공동체리더십훈련이 상호지지체계로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함을 통하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학생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들을 상쇄시키는 교육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시기는 자율적 행동이 강화되며 청소년 시기와 달리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이 인터넷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때에 이를 제재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만한 제어기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숙사는 기본적인 생활만을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공동체성을 기초로 하여 선배들의 삶의 모본이 이어지거나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관 제도를 기초로 한 인성교육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H대학에서 공동체성, 일치, 자치 및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소규모적 팀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팀 단위의 인성교육, 생활관에서의 삶의 교육, 영성 교육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질 경우에 학생들의 인터넷사용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그 과정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초점을 맞추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따뜻한 동료지지는 가족을 떠나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이라는 내적 심리적 힘을 높임으로써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파악하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종단적 연구결과가 아니며 개입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실험 연구가 아니기에 교육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인성교육 활동의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에 기반을 두고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개입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건강한 삶, 특히 기독 대학생들의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주요 요인들 - 즉 동료지지와 자기효능감 - 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된다면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정혜 외 (2008). “게임폭력성, 게임중독성과 공격특성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82-183.
- 김광숙·조윤희·라진숙·박주영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및 건강습관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2). 221-223.
- 김교정·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7(1). 149-179.
- 김순규 (2009). “인터넷사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1-22.
- 김은정·김하나 (2007). “폭력적 대 비폭력적 게임이 인터넷 게임 중독성향 청소년의 공격적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375-405.
- 김중범 (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진화·유귀옥 (2008).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과 공격성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7. 34-59.
- 남영옥·이상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박미경·정경희 (2002). “일부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외로움, 음주 및 건강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72-83.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11).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의 사이버 세계에서 자기개념: 초, 중, 고, 대학생 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81-113.
- 박영주·오가실·이숙자·오격옥·김정아·김희순·최상순·이성은·정추자·전화연 (2002). “한국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생활사건 및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32(6). 792-802.
- 박지은·최연희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재활간호학회지』. 14(2). 145-152.
- 박효정·김미영·정덕유 (2008). “여대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5(4). 513-521.
- 서승연·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91-405.
- 송원영, 오경자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송효진 (2010). “인터넷 이용과 중독.”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1). 103-121.
- 신성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윤예진·신성만 (2009).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권태감, 삶의 의미, 신앙성숙도와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87-216.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 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경주·신효식·김효실 (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 이난·김현수 (2008).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3(2). 77-97.
- 이만제 (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및 자아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3). 99-127.
- 이영아·정원철 (201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 관계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2). 27-50.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지향·김광웅 (2005). “인터넷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변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3(2). 15-32.
- 이환성·정진우 (2012). “인터넷과다사용의 영향요인과 중요도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205-236.
- 장선철 (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17-134.
- 장우귀·김의철·박영신 (2007).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502-503
- 정숙희·전명희 (2009). “한동대학교 공동체리더십 훈련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동저널』. 8. 111-129.
- 정숙희·전명희 (2011). “기독교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2). 231-254.
- 주석진 (2011). 『인터넷 중독과 학교사회복지실천』. 아담북스
- 최현석·하정철 (2011).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3). 437-448.
- 최혜숙 (2006). 여성노인의 건강증진 행위모형 구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한기홍·최은구·안권순 (2006).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409-42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 한동대학교 (2007). 『공동체리더십훈련: 팀운영지침서-2007년 가을개정판』.
- 홍의련 (2004).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청소년의 우울 및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황상민 (1997).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상 공동체의식과 복합 정체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66.
- 황혜리·류수정 (2008).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321-34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 Sherer & Maddux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ost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August.
- Vaux, A., Phillips, J., Holly, L., Thomson, B., Williams, D., Stewart, D. (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s (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5-219.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Internet Usage and Social Maladapt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Peer Support of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and Self-Efficacy –

Sook Hee Jung (Handong Global University)

Myung Hee Ju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and self-efficacy as protective factors in relationship with internet over-usage and social mal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e research, total 300 Christian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participated in a survey from a Christian college. The survey result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usage and social maladapt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level of peer support and self-efficacy mediated internet usage and social maladaptation as protective factors. The finding indicated that the level of peer support influences the level of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supportive environment in college life and needs for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such as a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Key Words: Christian college student, internet usage, social maladaptation, peer support,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